

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민족정체성의 현실과 과제

성 동 기

(인하대)

(tassdk@hanmail.net)



I. 서론

구소련의 붕괴 과정과 체제전환기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난 신생독립국 우즈베키스탄은 2013년에 독립 22주년을 맞이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역시 거주국의 독립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 22년이 된다. 1937년 극동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후 민족 특유의 성실성과 학구열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사회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으면서 고려인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고 체제전환기를 겪으면서 고려인은 1937년 강제이주 당시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체제전환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가 독립세대의 출현이고 둘째가 빈부의 격차이고 셋째가 한국과의 교류였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붕괴 전후로 태어난 고려인을 ‘독립세대’ 혹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세대’라고 정의한다.¹⁾ 이들 대부분은 소비에트체제를 경험하지 않고 체제가 전환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세대이며, 고려인 기성세대인 ‘소비에트세대’와는 다른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고려인 사회는 소비에트시기보다 훨씬 강한 빈부의 격차에 직면했다. 독립 이후 성공한 고려인 기업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에 사업에 실패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질 만큼 힘든 고려인도 있었다. 또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한국 등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고려인이 있는 반면에 힘들어도 거주국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고려인이 존재했다.

무엇보다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한국과의 교류이며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고려인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한국 기업들은 진출 초기에 우수한 고려인 인적자원들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면서 고려인이 모국을 갈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민족으로서 전통을 유지하려는 소비에트세대와 달리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독립세대는 고려인이 지켜온 한민족의 전통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한민족 전통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한다. 부유한 고려인은 한국을 방문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에 그렇게 못한 고려인은 TV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려인은 세대, 빈부격차, 한국과의

1)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출생한 소련 시민들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당시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세대’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국에서 유학 중인 고려인 대학생들은 거주국이 독립하고 소련 붕괴가 이루어진 직후로 출생한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세대’라고 규정하여 정의한다. 두 개념의 차이점은 전자가 체제전환의 혼란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미 사회를 진출한 세대라고 한다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직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문장 이후부터는 독립세대라고 서술할 것이다.

교류 정도 등과 같은 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정도도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겪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첫 번째 변수인 독립세대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소비에트 고려인 세대와 이들이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차이점과 원인이 제시될 것이다. 둘째,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두 번째 변수인 빈부격차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성공한 고려인과 실패한 고려인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빈부격차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이 제시될 것이다. 셋째,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가장 큰 변수로 평가되는 한국과의 교류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과의 교류 정도가 실제로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연관성이 제시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세 가지 변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민족정체성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II. 본론

1. 독립세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전체 독립세대의 인구를 계산해서 추정해 본다면 그 수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0년도 UN의 세계인구현황 보고서는 당해 연도에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인구는 2,700만 명이며, 이 중에서 0세-24세가 51.8%인 1,400만 명, 15세-24세가 22.4%인 600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자국의 인구가 동년 1월 1일에 2,959만 명이라고 밝혔다.²⁾ <표-1>에서 고려인 독립세대의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고려인 인구는 전체 우즈베키스탄 인구 2,850만 명의 0.9%인 256,500명이다.³⁾ 여기서 위의 2010년도 UN 통계에서 0-24세가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51.8%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14,535,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고려인 인구가 0.9%를 차지한다고 보면 이 연령대의 고려인 인구는 130,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인 독립세대가 가지는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려인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짐을 알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소비에트 고려인 세대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2) <http://www.stat.uz/press/1/3399/>(검색일: 2013. 10. 10)

3)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overview/index.jsp>(검색일: 2013. 10. 10)

때문에 고려인 독립세대의 민족정체성이 향후 고려인 사회의 민족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표-1〉 1989년 구소련 인구센서스 통계에 나타난 고려인 수

구소련 공화국	고려인 인구수(단위: 명)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	438,650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Russia SSR)	107,051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Uzbek SSR)	188,772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Kazakh SSR)	103,315
키르기스사회주의공화국(Kyrgyz SSR)	18,355
타지크사회주의공화국(Tajik SSR)	13,431
투르크멘사회주의공화국(Turkmen SSR)	2,848

※ 출처: http://demoscope.ru/weekly/ssp/sng_nac_89.php(검색일: 2013. 10. 10)

〈표-2〉 1985-1996년도 우즈베키스탄 출생자 수

출생년도 / 2014년도 연령	출생자 수(x1,000)
1985 / 29	679.1
1986 / 28	708.7
1987 / 27	714.5
1988 / 26	697.1
1989 / 25	668.8
1990 / 24	691.6
합계	4,159.8
1991 / 23	723.4
1992 / 22	710.5
1993 / 21	692.3
1994 / 20	657.7
1995 / 19	678.0
1996 / 18	634.8
합계	4,096.7

※ 출처: ДЕМОСКОП Weekly의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http://www.demoscope.ru/weekly/ssp/sng_bir.php (검색일: 2013. 10. 10)).

고려인 소비에트세대와 독립세대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상황. 고려인 1세대는 강제이주를 당한 후 스탈린에 의해 주도되었던 ‘소비에트화’ (Sovietization) 정책을 수용해야만 했다. 이들은 1938년부터 소련의 공식어가 된 러시아어만 배워야만 했으며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학습해야만 했다. 그리고 집단농장에 소속되어 농업이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 1세대는 집단농장에서 한민족 특유의 성실성과 인내심으로 정착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농업 이외

의 다른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만 있으면 성공을 보장하였던 소비에트체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독립세대는 고려인 1세대가 소비에트라는 체제의 연속선상에서 중앙아시아 정착을 추진한 것과 달리 체제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⁵⁾ 러시아어가 공식어에서 퇴출되고 거주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의 언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며, 이러한 민족주의 정책이 소수민족에게 차별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민족차별 없이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거주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는 독립세대의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려인 1세대는 소비에트체제 하에서 고려인 사회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고려인 독립세대는 체제가 전환되면서 무너진 과거의 유산들을 바탕으로 재정착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국외상황. 고려인 1세대는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 사회를 정착시키고 안정시키는데 대외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았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으나 소련이 승전국이 되면서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도약하는데 긍정적인 변수가 되었다.⁶⁾ 그러나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북한과의 교류는 유지할 수 있었으나 한국과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단절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반면에 독립세대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기존의 이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정된 대외관계가 사라지고 자신의 거주국이 미국, EU, 한국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로 들어와서 투자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고려인 독립세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⁷⁾

셋째,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고려인 사회는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당시에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였으나 소비에트화 정책으로 인해 그 정도가 상당히 희석되거나 변형되었다.⁸⁾ 게다가 냉전체제하에서 북한과 교류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았으나 실제로 북한이 고려인 사회에 민족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⁹⁾ 그

4) 고려인 1세대들의 강제이주 당시 그리고 이후 정착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김 블라지미르 (김현택 역),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문서로 본 반세기 후의 진실』, 서울: 경당, 2000.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한 발레리 셰르게이비치(김태항 역),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高談社, 1999.

5) 체제전환기에 직면한 고려인 사회의 변화상은 다음의 문헌 참조. 성동기, 「우즈베크 다민족정책과 민족주의 :현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고려인의 위상 재조명」, 『在外韓人研究』, 11, pp. 99-129.

6) 소비에트 정부는 대부분의 고려인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7) 현재 구소련 지역에 남아있는 북한대사관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뿐이다.

8)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립민속박물관, 『카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0.

9)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정부는 소수민족의 문화정체성 함양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였으

러나 소련 붕괴 이후 체제전환기에 직면하고 한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인 사회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고려인 소비에트세대는 소비에트화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어를 학습할 공간이 없었으며 비록 한국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단지 선대로부터 보고 들은 한민족의 전통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뿐이었다. 그러나 고려인 독립세대는 북한과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한국과 수교하면서 한국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지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민족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어를 구사하면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고려인 독립세대는 소비에트 세대보다 보다 더 민족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고려인 독립세대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처럼 다음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다. 지야예바(Ziyaeva, Diora)는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세대의 출신, 성장배경,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¹⁰⁾

첫째,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 이들은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는 교육 선진국들이 해당국에 제공하는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해외 학교들과 체결된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당국 대통령이 선발하는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 제도인 우미드 재단(Umid Foundat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단기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우 우수한 학업성적을 받아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타슈켄트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자는 독립세대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려인 독립세대는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로 인해 사실상 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나가고 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수는 적은 편은 아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합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유학생 349명이 위의 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 특히 학사과정을 선발하지 않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제외하면 115명의 고려인 유학생이 두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가 학

며, 단지 고려인 사회 내에서 민족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소비에트시기에도 한국어로 발간된 고려일보(구 레닌기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10) Ziyaeva, Diora 「Changing Identities Among Uzbek Youth: Transition From Regional to Socio-Economic Identities」 NBR(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Conference on "Generation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Uzbekistan", March, 2, 2006, Washington D.C.

〈표-3〉 2011년도 중국 및 구소련 국적별 한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누적 현황*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제교육원***	
중국	197	254	44	495
러시아	60	166	14	240
우즈베키스탄	47	92	9	148
카자흐스탄	43	92	1	136
우크라이나	7	31	2	40
아제르바이잔	2	32	1	35
키르기스스탄	10	50	5	65
총계	366	717	76	1,159

* 학사, 석사, 박사 포함 **재외동포 유학생 인원 수 ***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유학생 인원 수

※ 출처: 신낙균의원 2011년도 국정감사 보고서(http://www.shinnakyun.com/media/broad_view.php?idx=2748&page=2&board_type=5#)
(검색일: 2013. 10. 10))

사과정의 선발 인원이라고 한다면 6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출생하고 우즈베키스탄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최우수 학생들 군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들은 거주국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고자 한다. 전체 독립세대에서 이들의 수가 두 번째로 많다. 고려인 독립세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농촌 출신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지방의 농촌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보다는 일찍이 사회활동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과 같은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나서 현지에 불법 체류하는 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¹¹⁾ 전체 독립세대에서 이들의 수가 가장 많다. 고려인 독립세대는 도시에 대부분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러시아와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고려인 독립세대는 농촌 출신이 아니라 티슈켄트와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넷째, 상류계층의 독립세대.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출신이며 자신의 부모들이 해당국의 권력층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와 달리 이들은 자비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가장 앞서 있다. 고려인 독립세대에서 이

11)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난 우즈베크인은 2백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해당국 GDP의 8%에 달한다. (<http://www.fergananews.com/article.php?id=5206>(검색일: 2013. 10. 10)). 이들 중에서 독립세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해외 이주노동으로 떠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한 부류에 들어가는 수는 상당히 극소수이다.

다섯째, 방치된 독립세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장했으며, 독립세대 전체로 보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범죄자 집단으로 분류된다. 고려인 독립세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려인 독립세대의 민족정체성이 가지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는 기존의 고려인 소비에트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고려인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소련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들만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과 달리 신생독립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고 학업하면서 거주국의 민족주의 정책과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확실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거주국이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민족정체성과 또 다른 민족정체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기존에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민족정체성이 고유의 한민족 전통으로부터 희석되고 변형된 것이라면 이들이 접하고 배우는 그것은 한국적인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민족정체성을 두고 고려인 독립세대는 혼란을 겪고 있다.

둘째, 한국에 다가가면 갈수록 민족정체성에 더 혼란을 느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는 한국어를 습득하면 한국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있고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한국적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성세대보다 민족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훨씬 나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적 민족정체성을 고취시키면 고취시킬수록 자신이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더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를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는 제한된 한국 기업이나 한국으로의 유학 기회를 잡기 못하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에서 자신의 가치는 무엇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어를 익히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배워도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이들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된다. 따라서 최근에 경제성장을 비약적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로 가면 오히려 언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다시 러시아어와 문화에 익숙한 러시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2. 빈부격차

독립 초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당국은 구소련 연방국가 중 러시아(1,680조 m³), 투르크메니스탄(71조 m³)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 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량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인근 CIS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5조 5,000억m³로 세계 10위의 생산국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이어 구소련 국가 가운데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에 달한다.¹²⁾

〈표-4〉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현황

광 종	단위	우즈베키스탄(A)	세계(B)	A/B(%)	세계순위
석탄	백만 톤	4,000	984,211	0.4	19
금	톤	5,300	49,800	10.6	5
몰리브덴	천 톤	60	8,600	0.7	11
텅스텐*	천 톤	20	3,200	0.6	12
우라늄	천 톤	65.62	2,619.31	2.5	10

*: 추정치

※ 출처: 이재영·윤성학(2006: 99)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 발전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실제로 독립 초기 우즈베키스탄이 구축한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저서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과 “우즈베키스탄 21세기 문턱: 안전의 위협, 안정의 조건 그리고 발전의 보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지향하는 경제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였다. 이 원칙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새로운 시장경제를 신중하게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것이었다.¹³⁾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개방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데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태환과 이중환율은 위의 정책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 문제들은 외국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도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처럼 자국의 지

12) 윤성학, 이재영,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서울: 한국무역협회, 2006, 97쪽.

13)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6, 9쪽.

14) 1996년 목화의 국제가격 시세가 내려가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른 외채의 비율이 높아지자 우즈베크 정부는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실시하여야 했으며, 특히 외국기업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부족으로 불태환정책을 고수하게 되었다.

하자원을 수출하여 경제발전을 시키기 보다는 2차 산업을 육성하는 공업화 정책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년 120만 톤의 면화를 생산하는 세계 4위의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수출국인 해당국은 원면을 그대로 수출하기 보다는 가공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유일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비록 폐쇄적인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인 2,900백만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형성되고, 농산물, 자원 등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수입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통한 고도의 성장보다는 정책에 맞추어 점진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표-5〉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지표

지 표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전체(백만USD)	17,022	22,298	28,586	32,792	38,956
	성장률(%)	7.3	9.5	9.0	8.1	8.5
	1인당GDP(\$)	642	823	1,011	1,171	1,367
소비자물가상승률(%)		11.4	11.9	13.7	10.6	12.1
교역	전체(백만USD)	9,456	14,367	19,575	19,758	20,070
	수출(백만USD)	5,615	8,029	10,298	10,735	12,010
	수입(백만USD)	3,841	6,338	9,277	9,023	8,060
	수지(백만USD)	1,774	1,692	1,021	1,712	3,950
경상수지(백만USD)		2,927	4,326	4,050	3,545	5,783
외환보유고(백만USD)		4,459	7,413	10,150	9,000	9,800
국가외채(백만USD)		4,032	3,931	3,995	3,843	4,230

※ 출처: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2011자료(<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both/index.jsp>(검색일: 2013. 10. 10))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에너지자원, 지하자원 그리고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로 인해 해당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시스템을 고수한 덕택에 실질적인 위기를 겪지 않았다.

최근에 발생하는 거주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고려인 사회도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독립 초기에 고려인 사회는 거주국의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과 경제낙후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등이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주로의 재이주. 이종훈에 의하면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 원인은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소수민족의 차별과 불이익, 타지키

스탄 내전에 의한 미래의 불안감, 그리고 1993년 러시아정부의 ‘고려인 명예회복법안’ 통과로 법적인 재이주의 가능성으로 정리하였다.¹⁵⁾ 그러나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의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¹⁶⁾

둘째,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구소련 붕괴 직전에 고려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대단위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고본질을 시도하였다. 이 일은 주변국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후 수익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1년의 대부분을 가족과 떠나서 보내야 했다. 만약에 수확물을 제대로 팔지 못하면 채류지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유동적이었으며, 독립 이후 고본질이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가족의 해체와 무국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셋째,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체제전환기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고려인은 기존의 직업에서 받는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직업으로 이직을 단행하거나 부업을 시도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자본주의에 낯선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업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자녀의 교육에 등한시 하였으며, 힘든 경우에는 이 들마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점차적으로 과거와 같이 전문직이 되기 위한 높은 교육열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초기의 부정적인 상황은 최근에 변화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변화를 제공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및 외국기업의 진출. 독립 직후부터 삼성, 대우 등의 본격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고려인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한국어의 필요성 증대, 자본주의 경제·경영 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기업 및 정부의 지원확대 등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다른 소수민족들보다 체제전환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비록 고려인 사회에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자들은 일부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15) 전영섭은 1993년 3월 통과된 재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강제이주와 그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 범죄적인 조치로 인정, 고려인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② 강제이주 전 원래 거주지로 귀환할 권리를 부여한다. ③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 각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 취득권을 준다. ④ 원거주지로 귀환하는 고려인에게 납세 특전 등 제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준다. ⑤ 구소련 내 고려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독립국가연합 차원의 방안을 마련한다.

16) 심현용에 의하면 1999년까지 연해주로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수치는 767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재이주 이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둘째,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 독립 초기에 이직을 통해 장사나 사업을 하였던 자들이 실패도 하였지만 성공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즈베크인이 주도하는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은 힘들지만 무역이나 3차 서비스 산업에서 성공한 고려인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고려인 사회에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¹⁷⁾ 결과적으로 고려인 사업가의 등장과 성장은 고려인 사회가 시행착오를 지나 자본주의에 적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경제적 성장은 거주국의 폐쇄된 경제 구조로 인해 한계를 보였다.

〈표-6〉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고려인 사업가

국가	성명	나이/세대	회사명	업종
우즈베키스탄	정 겐나지	48세/3세	테겐	소시지 가공
	김 게오르기	45세/3세	프로체스(PA)	가구공장
	유가이 베라	47/3세	청송	요식업

셋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초기에 체제전환기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0년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고유가 행진을 발판으로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였다. 카자흐스탄 역시 자국의 풍부한 석유를 수출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중앙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양국으로 이주노동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

넷째, 재이주의 부담감 인식. 위의 상황으로 인해 독립 초기에 발생한 연해주로의 재이주는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비록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재이주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는 이주노동은 선호하지만 재이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고려인 475세대가 체제전환기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고려신문’의 편집장인 김 부르트는 거주국의 독립 당시에 고려인 사회에도 1950년대에 출생하여 1970년대에 대학교를 수학한 40대 이상을 의미하는 475세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체제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해 고려인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없이 장사나 사업을 시도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17) 예를 들면, 타슈켄트 최대의 레스토랑이자 명소인 ‘청송’은 고려인 박 베라가 주인으로 있으며 건물이 3동에 전체 좌석만 1,000석이 된다. 여기에 고용된 직원은 대부분 고려인이며, 식당과 관련된 연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등 체제전환기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하였다. 따라서 김 부르트는 475세대가 흔들리면 그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나아가서 고려인 사회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거주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의 대표적인 고려인 사업가들 역시 475세대에 해당한다. 이들은 체제전환기에 신속한 적응을 통해 성공을 거둔 극소수의 475세대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에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고려인의 빈부격차가 민족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은 극단적인 형태를 가진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한 후 독립한 경우이거나 한국 기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고려인의 경우에는 고려인 독립세대와 유사한 양상을 가진다. 한국을 접하면 접할수록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민족정체성과 한국적 민족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게다가 그들의 자녀가 대부분 독립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과 세대 간 갈등도 경험하게 된다. 독립세대는 한국적 민족정체성에 치우쳐져 있는 반면에 475세대는 아무래도 한국적 민족정체성보다는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민족정체성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¹⁸⁾ 한국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고려인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민족적 전통을 유지할 뿐이지 한국적 민족정체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자녀는 지야예바(Ziyaeva, Diora)가 분류한 서구 지향적인 독립세대와 상류계층의 독립세대에 해당된다.

둘째, 체제전환기에 실패를 경험한 다수의 475세대 고려인 역시 기본적으로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민족적 전통을 유지한다. 이들의 자녀들 역시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던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성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야예바(Ziyaeva, Diora)가 분류한 교외 지역 출신의 독립세대와 농촌 출신의 독립세대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빈부격차로 인해 고려인에게 나타나는 민족정체성의 변화는 세대를 넘어 같은 성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한국과의 교류 정도

한국 정부의 1992년 1월 29일에 우즈베키스탄과 수교를 맺었으며, 1993년에 타슈켄트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프라가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나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

18) 예를 들면, 고려인 독립세대인 자녀들은 서울식 한국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모인 475세대는 고려인 방언을 구사하는데서 그친다.

과 인도 등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데 베이스캠프로 적합한 곳이었다. 게다가 이미 국제 사회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양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포함하는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다.¹⁹⁾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구소련 붕괴 초기에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기업체, NGO단체 등과 같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정체되어 있던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진전되었다.

첫째,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국가적 활용도를 높여야한다는 취지에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 한국 국민과 유사한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1999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부터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 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제외되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99헌바 494)을 내렸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회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시 재외동포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발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치 상승. 2000년 이후 국제 고유가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과 2005년도에 각각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였다. 이후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이와 거의 동시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도 대사관이 설립되었다. 해당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위 3개국에 한국대사관이 개설된 것은 결국 해당 국가의 고려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해 주었으며, 나



19)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한인들과 이들의 거주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아가 중앙아시아 전체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상으로 인식된 계기는 재외동포법 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발생한 중앙아시아의 가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도 한국 정부의 위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한국과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방문취업사증(H-2) 덕분이다.²⁰⁾ 이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3월 4일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복수 사증 발급, 입국문호 확대,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은 5년 유효, 1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데 있다. H-2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 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08년 무시험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2,711명의 쿼터 중 2,165명이 신청하여 모두 합격 처리되었으며, 동 쿼터에 대해 2008년 11월 11일부터 H-2 신청을 받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 등은 매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인동포 방한초청사업, 장학생 초청사업, 고려인 단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초기부터 한국 기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과 고려인의 접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고려인의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초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려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특히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인텔리 출신의 고려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던 한국 기업들을 지원해 주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초기에 고려인 인텔리들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 방문취업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alactv.kr/?document_srl=14384(검색일: 2013. 10. 10)

〈표-7〉 우즈베키스탄 대표적 한국기업

(단위: 1,000달러)

투자자명	현지법인명	허가일자	사업내용	허가금액 (투자금액)
갑을방직	Kabool Toytepa Textiles	95.10.04.	면사, 면직물	67,170(0)
대우	Uz-Daewoo Auto Co	95.02.24.	경승용차, 경상용차	100.000 (100.000)
대우전자	Uz-Daewoo Electro Nics Co, Ltd	93.04.14.	TV, VCR	15.000 (5.000)
대우	Uz-Daewoo Textiles Co, Ltd	95.05.12.	순면사, 면혼방사	7.140(0)
대우통신	Aloka Daewoo	95.10.26.	교환기	3.315(0)

※ 자료: 한국은행, 1995.

첫째, 강제이주 이후에도 전개된 고려인의 높은 교육열. 구소련 당시에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 고려인은 해당국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민족 고유의 교육열이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민족별 교육수준에서 각 민족들의 인구대비 고등교육 수준은 고려인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1989년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 민족별 교육수준

민족	대퇴,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이하	
	주민 수(천)	%	주민 수(천)	%	주민 수(천)	%
우즈베크인	753.8	6.7	4580.3	40.1	3803.9	33.8
러시아인	234.8	15.8	620.5	42.1	465.6	31.5
고려인	25.1	15.7	64.8	40.6	48.7	30.4

※ 자료: 김명길(Ким Мен Гир), 미발표 논문, 1992.

둘째, 다양한 직업에 종사. 구소련 시기에 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 고려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특히 한국 제조업체들이 해당국으로 진출하면서 현지인 채용이 불가피하였던 기술전문직에 고려인이 다수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인 법률가, 회계사, 관료들 역시 한국 기업들이 해당국에 진출하여 초기에 정착하는데 지원을 하였다.

한류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한국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주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올인’, ‘완전한 사랑’, ‘세잎클로버’,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여인’, ‘대장금’, ‘장보고’, ‘주몽’ 등과 같은 드라마가 현지에서 호응을 받았다.²¹⁾ 한류가 우즈베키스탄에 발전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고려인의 존재와 함께 한국 기업체들의 진출과 맞물렸기 때문이다.²²⁾

21) 대장금은 이미 10회 이상 재방송되고 있다.

22) 우즈베키스탄 역시 독립 초기에 활발하게 진출한 한국 기업체들과 한국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에 대한 보답을 국제무대에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5대 중점 외교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http://uzb.mofat.go.kr/kor/uzb/affair/relation/index.jsp>(검색일: 2013. 10. 10)) 그리고 이미

한국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고려인의 민족정체성도 영향을 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인 사회는 기존의 고려인 사회가 가지는 민족정체성에 익숙해져 있다고 갑자기 만나게 된 한국적 민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많은 고려인이 한국인과의 만나면서 전통에서 많이 개량된 한국적 민족정체성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선대로부터 배웠던 한민족 전통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적 민족 전통이 그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서 고려인이 상당한 박탈감을 받았다. 필자는 2013년 10월 3일 서울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201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고려인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한국과 한국인을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낯설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2011년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유학생 100명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한국어로 수업받기가 제일 힘들다는 답변 다음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사귀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나왔다.²³⁾ 따라서 한국과의 교류 정도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4.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발전시키는 위한 과제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세대, 빈부격차, 한국과의 교류 정도 등을 선택하였다.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필요한지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국가정책성 확립을 위해 우즈베크어 습득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우즈베크인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즈베크어가 공식어가 되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고려인은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우즈베크어를 습득해야 한다.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져야 민족정체성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동포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 사회는 독립세대를 중심으로 우즈베크어 습득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독립 우즈베키스탄이 존재한지 벌써 2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된 모습은 없다. 지금은 고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12월 KEDO 회원국으로 북한 경수로 건설에 자국 인력을 투입하였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여수 엑스포 유치 지지 및 참가 조기 결정,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지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2007년-2010년) 임후보 지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과 만국우편연합(UPU) 이사국 임후보 지지, 만기문 장관의 UN사무총장 임후보에 대한 최초 공개 지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8) 한국 유치 지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http://news.mofat.go.kr/ene 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655&ssid=19&mvid=755>(검색일: 2013. 10. 10))

23) 윤성학 외,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p. 284.

러인이 우즈베크어를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점이 크지 않다. 우즈베크인이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고 러시아어 방송이 나오기 때문이다. 불편한 점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즈베크어를 모르면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즈베크인의 인구증가와 타슈켄트를 제외한 지역에서 러시아어 문맹자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타슈켄트에서만 러시아어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고려인은 대부분 타슈켄트와 그 주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고려인이 드물 정도로 타슈켄트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인의 우즈베크어에 대한 의식문제는 스스로를 제한된 공간에 내몰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고려인의 우즈베크어 습득을 장려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즈베키스탄의 전체인구에서 러시아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우즈베크인 독립세대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크어를 구사해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고려인 독립세대의 민족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중심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한국교육원은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되고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정식 학과로 인가를 받았다. 양국에서 이렇게 전개된 한국어교육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기업체보다 임금이나 근무조건이 나은 한국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 기성세대들과 학생들이 증가하여 한국교육원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한국어교육을 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한국의 IMF체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정체되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려인 독립세대가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좁아졌다. 게다가 한국에서 장기간 이주노동을 하고 돌아온 우즈베크인들이 이들의 자리를 위협하면서 한국어교육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한국교육원에 고려인 독립세대의 입학 수는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려인 독립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주도할 미래의 고려인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한국 중심의 일방적인 기존의 민족정체성 교육은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다. 한국어교육 중심의 민족정체성 교육이 신생독립국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 독립세대뿐만 아니라 고려인 사회 전체에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배운 한국어가 이들의 민족정체성

함양에 도움은 주겠지만 실제로 활용할 가치가 줄어들면 한국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이 바로 민족정체성을 고취시킨다는 공식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고려인 독립세대 역시 미국과 일본 등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거주국에서 정착하고 안정을 찾는 것이 일순위이지 한국어교육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독립세대가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야만 고려인 사회는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9〉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과가 설립된 대학교 현황

국가	학교명	설립연도	재학생 수
우즈베키스탄*	동방대학교	1996년	321명
	니자미사범대학교	1956년	251명
	세계언어대학교	1994년	54명
	사마르칸트의국어대학교**	2002년	233명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 현황”, 한국어 교육, Vol.11, No.1, 2000, pp. 212.

**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5452>(검색일: 2013. 10. 10)

셋째, 한국적 민족정체성을 제대로 알려한다. 사실상 고려인 사회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문제에 고민하게 된 것은 소비에트체제하에서 100여 민족에 달하는 다민족들과 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민족들과 결혼이 증가하고 전통적 풍습을 등한시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고려인 지도층은 한민족의 전통을 고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고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위기에 있었던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문제가 갑자기 고취되었다.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 그대로 있었다면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은 점진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까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 민족정체성이 고려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낯설다는데 있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강요된 한국적 민족정체성은 고려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사실 한국적 민족정체성이라는 것이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량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고려인 사회에서 전해지는 민족전통이 더 민족적인 것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민족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한국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 특히 고려인 독립세대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텐 미하일(Тен Миханл)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인 독립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이민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민족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려인을 상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²⁴⁾

24) 윤성학 외,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p. 290

〈표-1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차세대의 이민 국가 선호도²⁵⁾

이민을 원하는 국가	순위(응답자 비율%)	이민 가능성이 높은 국가	순위(응답자 비율%)
한국	1(38%)	러시아	1(40%)
미국	2(16%)	카자흐스탄	2(26%)
러시아	3(8%)	캐나다	3(2%)
프랑스	3(8%)	미국	3(2%)

III. 결론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자신들의 민족정체성 위기를 고민하게 된 것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100여 민족과 공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고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위기는 더욱 큰 혼란으로 나타났다.

1991년에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변화를 겪고 있다.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전환기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에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가 독립세대의 출현이고 둘째가 빈부의 격차이고 셋째가 한국과의 교류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립세대 대부분은 소비에트체제를 경험하지 않고 체제가 전환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세대이며, 고려인 기성세대인 소비에트세대와는 다른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소련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들만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과 달리 신생독립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고 학업하면서 거주국의 민족주의 정책과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확실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거주국이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민족정체성과 또 다른 한국적 민족정체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거주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고려인 사회도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독립 초기에 고려인 사회는 거주국의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과 경제낙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해주로의 재이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직업 선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저하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초기의 부정적인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한국 및 외국기업의 진출,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 셋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넷째, 재이주의 부담감

25) http://world.lib.ru/k/kim_o_i/u1u1.shtml(검색일: 2013. 10. 10)

감소 등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도 한국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방문취업사증(H-2)이 2007년에 실시되면서 고려인의 한국 방문은 훨씬 개방되었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 등과 같은 기관들이 고려인동포 방한초청사업, 장학생 초청사업, 고려인 단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고려인이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접촉을 하는 고려인의 민족정체성도 영향을 받았다.

세대, 빈부격차, 한국과의 교류 정도 등이 고려인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려인이 국가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해 먼저 우즈베크어를 습득해야 한다. 둘째, 고려인 독립세대의 민족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중심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한국적 민족정체성을 제대로 알려한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9.
- 국립민속박물관, 『카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0.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 현황」, 『한국어 교육』, 제11권 2호, 2000, pp. 212.
- 김 블라지미르(김현택 역),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문서로 본 반세기 후의 진실』, 서울: 경당, 2000.
- 성동기, 「우즈베크 다민족정책과 민족주의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고려인의 위상 재조명」, 『在外韓人研究』, 제11권 1호, 2001, pp. 99-129.
-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제18권 1호, 1999, pp. 359-378.
- 윤성학 외,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윤성학, 이재영,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가이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서울: 한

- 국무협회, 2006.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6.
 - 전영섭. 1998. “구소련 고려인 강제이주와 연해주 귀환문제”. 시민과 변호사. 제53권. pp. 104-123.
 -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한 발레리 셰르게이비치(김태항 역),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高談社, 1999.
 - 한국은행. 1995.
 - Ziyaeva, Diora “Changing Identities Among Uzbek Youth: Transition From Regional to Socio-Economic Identities” NBR(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Conference on “Generation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Uzbekistan”, March, 2, 2006, Washington D.C.
 - КНМ Мен ГНР, 1992,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 <http://www.stat.uz/press/1/3399/>(검색일: 2013. 10. 10)
 -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overview/index.jsp>(검색일: 2013. 10. 10)
 - http://demoscope.ru/weekly/ssp/sng_nac_89.php(검색일: 2013. 10. 10)
 - http://www.demoscope.ru/weekly/ssp/sng_bir.php(검색일: 2012. 03. 02)
 - http://www.shinnakyun.com/media/broad_view.php?idx=2748&page=2&board_type=5#(검색일: 2013. 10. 10)
 - <http://uzb.mofat.go.kr/kor/eu/uzb/affair/relation/index.jsp>(검색일: 2013. 10. 10)
 - <http://news.mofat.go.kr/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2655&ssid=19&mvid=755>(검색일: 2013. 10. 10)
 -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55452>(검색일: 2013. 10. 10)
 - http://world.lib.ru/k/kim_o_i/u1u1.shtml(검색일: 2013. 10. 10)

The Reality and Challenge Task of the Uzbek-Korean's Ethnic Identity

Dong Ki Sung
(Inha Univ.)

key word: the Uzbek-Korean, ethnic identity, Uzbekistan

The Uzbek-Korean who lives in Uzbekistan have undergone the change of ethnic identity since 1991. The main cause that has brought about the change in their ethnic identity is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It made three changes in the Uzbek-Korea society: the emergence of the Independent Generatio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 exchange with Korea.

The Independent Generation of the Uzbek-Korean was inexperienced in Soviet Regime and they brought up in the circumstance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So they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Soviet Generation. Now they have the problems of ethnic identity. The Uzbek-Korean society also has been changed from the economic growth of Uzbekistan since 1991.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the Uzbek-Korean society is worse. It affects the Uzbek-Korean's ethnic identity. The Uzbek-Korean's exchange with Korea has become very active by H-2 visa. Through the process, their ethnic identity has been changed.

We should recognize 3 challenges to develop the Uzbek-Korean's ethnic identity: they have to learn the Uzbek language to establish nation identity, they have to stay away from the Korea language education to establish ethnic identity, they have to learn Korean-style ethnic identity.